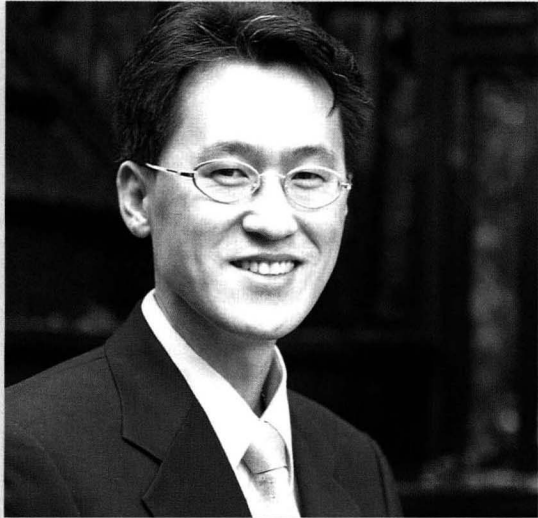


## 느긋하고도 은근하게 끓는 스튜냄비로 살기, 현직변호사가 보여주는 '당사자 적격' 번역



물마저 권리를 내세우며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을 유감없이 피력한 것이다. 그로부터 30여 년, 조금 늦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변호사 허범(37)씨의 수고로움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신선한 기획'을 만나는 일은 그저 기약 없는 일

나무들만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꼬리치레도롱뇽 역시 지울스님의 힘을 빌려 법정에 서게 된다.

경남 양산시 천성산, 곧 꼬리치레도롱뇽의 보금자리가 고속철도 개통구간으로 확정된 까닭이다. 천성산 관동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 물거품된 시점에서 그들은 할 말이 많다. 꼬리치레도롱뇽과 소송을 함께 진행할 10만인 서명을 얻는 날까지 목숨을 내건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지울스님은 지난 10월 15일 꼬리치레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시점에서 《법정에 선 나무들》은 그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반가운 책이다.

1971년 미국에서 《법정에 선 나무들》(원제 : Should TREES Have Standing)이 출간되었을 때 미 법조계에 미친 파장은 대단했다. 그렇잖아도 경계가 모호한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던 때, 산과 호수, 그리고 동식

이 될 수도 있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을 다닐 때, 제 손에 늘 들려 있던 것이 원서 《Should TREES Have Standing》이었습니다. 서울대 조홍식 교수께서 추천한 책이었는데 그 매력에 상당했지요. 이거 심심풀이로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 그날부터 하루에 한 쪽씩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쪽 분량은 전문번역가가 아닌 제게 최선의 작업량이었습니다. 2년을 꼬박 몰입하고 나니 역자후기를 쓸 때가 되었던군요."

책이 출간된 후 그는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좋은 책을 번역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관동노선 문제가 쟁점이 되던 때라 의미 있는 도리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문제라는 생각에서 번역한 것이지,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 번역을 맡은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미국에서 책이 출간된 후 '비람강',

'노바텀 늪지와 브라운 시냇가', '마케나 해변' 등 환경소송에 나선 원고들의 이름을 보며 그들의 열린 사고와 가치관이 부러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꼬리치레도롱뇽이 원고로 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니 책의 역자로 반가울 수밖에 없단다.

"사실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책에서 보이고 있는 유토피아 사고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책에서 언급된 예들 가운데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어 실제 본안에서 패소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오늘에도 쉽게 전복될 분위기는 아니구요. 천성산 꼬리치레도롱뇽 건은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선불리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법이든 무엇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많은 환경단체들이 결집해 오늘 이런 사례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진국 못잖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충분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석화된 기존관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기운 넘치는 한 번의 마차질이나 아니다. 작은 가능성을 믿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타진만이 유효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원고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논하기 전,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직 많은 탓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불투명한 진단을 내리며 그 역시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지만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이지 않고, 목적도 필요성도 없는 개발에는 분명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그는 든든한 지원군임에는 틀림없다.



《법정에 선 나무들》 크리스토퍼 D.스톤 지음 | 허범 옮김 | 아르케 | 346쪽 | 값 15,000원

“책에 대한 기대이상의 관심에 놀랐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시각으로 책을 서평한 기사를 볼 때면 번역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책을 읽고 새로운 대안과 힘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얘기를 들으며 2년간 힘들게 작업한 보람도 느꼈습니다.”

가볍게 들끓지 않고 한소끔 느긋하게 끓여 인생의 맛을 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그는 스투냄비를 닮았다. 한 권의 책에 대한 지고지순한 순정이 번역가라는 이름을 더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법조인이라는 이름도 그러한 근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 도시공학과정을 수료했는데, 아무 연관 없는 두 전공을 연이어 공부했던 시기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모색의 시기였다고 한다. 스스로 서는 나이인 이립而立, 서른에 그가 선택한 것은 화학공학과 도시공학과 아닌 사법고시였다. 그것이 제길이라 결정한 순간, 그는 서른이라는 나이의 조급함을 버리고 5년간 느긋하게 자신을 다시 한 번 끓여냈다.

“화학공학과 도시공학, 그리고 사법고시 세 가지 단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 보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번역에 있어서만은 유효한 연결고리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어 더욱 폭넓은 사고와 다양한 의미를 확장시켜

볼 수 있었지요. 뭘 배우든 버릴 것은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허범 씨는 현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 건설, 재개발·재건축, 지적재산권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번역가에서 변호사로 돌아온 지금의 하루 일과는 의뢰인들을 만나고 서면작업을 하며 틈틈이 신문을 들춰 보는 어느 변호사와 다를 것이 없다.

“국립공원을 다룬 책 《Mountains without handrail》을 번역해 볼 생각입니다. 역시 조홍식 교수께서 추천한 책인데, 일찍이 읽었고 진즉부터 번역을 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전작 못지않은 매력이 가득합니다.”

우리네 입장도 것처럼 점잖고 느긋할 수는 없을까. 수천 년 많은 생명의 서식지로 몸을 내어준 산을 관통하겠다는 편 의주의적인 입장 앞에서,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어 버리는 약속 앞에서, 이 책은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어 꼬리치레 도롱뇽이 법정에 설 날을 바라마지 않지만, 변호사 허범 씨가 환경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한 권의 책을 번역했다는 것은 일단 ‘당사자 적격’ 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

취재 박용두 기자· 사진 박신우 기자

